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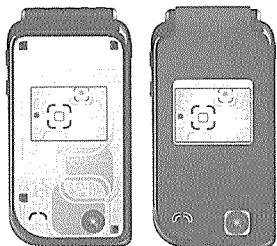
노키아 인도공장, 내년 7월부터 휴대폰 생산예정

노키아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석 부사장인 Rajeev Suri씨는 2006년 하반기부터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휴대폰이 생산될 것이라고 6월 19일 발표했다.

인도 첸나이 공장은 노키아의 10번째 해외 생산 기지로써 투자금액은 1억달러에서 1억 5,000만달러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키아는 휴대폰 붐이 일고 있는 인도 시장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휴대폰을 공급하기 위해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키아는 저렴한 비용으로 음성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해 Bihar 및 Rajasthan와 같이 통신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의 스테이션 설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인도는 GSM 네트워크가 휴대폰 통신의 주요 시스템이지만 노키아는 제3세대 휴대폰 통신 네트워크도 인도시장에 아주 빨리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키아는 음성 네트워크의 성장은 대부분 저소득층에서 발생하지만 저가 제품의 총 매출증가가 이 분야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키아는 2005~08년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휴대폰 가입자수는 3억 명에 달할 것이며, 이중 인도시장이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키아 수석 부사장인 Rajeev Suri씨는 인도 휴대폰 시장은 경쟁이 가장 심한 시장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규모의 생산을 통한 적절한 가격정책이 결합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이 시장지



배력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휴대폰 가격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진입용 제품의 가격에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노키아는 인도 CDMA 시장에서의 기반확화를 위하여 저급, 중급 및 고급 등 전 분야에 걸쳐 6개의 새로운 모델을 금년 말까지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키아 수석 부사장인 Timo Ihamoutila씨는 릴라이언스와 같은 CDMA 휴대폰 서비스업체들이 원할 경우 노키아는 CDMA 휴대폰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 IBM, 디지털가전사업 참가



IBM이 디지털가전사업에 참가한다. 이를 위해 일본IBM의 R&D부문이 있는 야마토 사업소내에 첫 전문부대를 설치해 TV나 휴대폰 등 디지털 가전에 내장되는 제어소프트웨어의 개발수탁이나 지원을 담당하게 한다. 그리고 동사업을 IBM그룹의 기간사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며 국제적 가전메이커가 모인 일본을 중핵거점으로 포지셔닝한다.

이를 위해 야마토사업소내에 약100명 가량의 신조직을 설치해 고객기업의 개발무문과 공동으로 디지털가전용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고객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개선이나 동작테스트도 담당하게 된다. 동조직은 IBM이 그간 쌓아온 제품개발 노하우를 제공해 고객기업의 개발프로세스의 효율화도 지원한다.

조직 인원은 야마토사업소의 연구원 약 2,500명 가운데 소프트웨어나 하드기기의

개발연구에 관여해 온 기술자를 선정해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북미나 유럽에 놓인 IBM의 주요연구개발거점에도 디지털 가전을 대상으로 일본 보다 규모가 작은 전문조직을 둔다. 이들은 중핵부대가 될 야마토사업소와 성과를 교환하며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야마토사업소는 IBM의 소형제품을 담당해 온 전략적 개발거점으로 노트북 'ThinkPad'를 낳은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전자부품이 발하는 열이나 전자파 처리기술, 전력절감 기술, 사용하기 쉬운 화면설계 기술 등 디지털 가전에 응용 가능한 요소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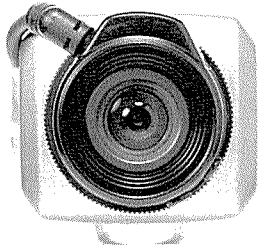
IBM이 이제까지 IBM 제품에 쏟아온 기술력을 디지털가전 각사에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낳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을지 사업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UAE, CCTV 수요 꾸준히 증가

UAE의 CCTV 시장 수요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건축붐에 따라 주택, 상가, 호텔 등에 설치되는 CCTV의 수량이 늘어나면서, UAE 내수물량이 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등도 치안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장 기초적인 보안설비인 CCTV의 재수출 물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요즘은, 과거 BNC 케이블(검정색 굵은 케이블)로 동일 건물내에서만 연결이 가능했던 CCTV들이 랜선 또는 일반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 연결로 실제 CCTV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경우에 따라 타국가에서도 가능) 곳에서도 자신의 사무실이나 집의 내부상황을 볼 수 있게 되어, 1개월씩 장기 여름휴가를 떠나는 중동의 특성상 신형 CCTV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UAE의 CCTV 시장규모는 2003년 4,000만달러, 2004년 4,500만달러, 2005년 6,000만달러로 매년 10~15%선의 성장



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련 바이어 면담 결과 파악됐다.

UAE에는 우리나라의 유명브랜드 및 OEM 제품, 기타 각종 브랜드를 비롯, 전세계 각국의 다양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주요 한국산 CCTV 브랜드로는 Winnertech, Inter M, Moltan, Ez Syscom, Fine Security, Monax, Commax, Samsung, Kocom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매월 3~5개의 신규 한국 브랜드가 UAE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산 외에 주요 외국브랜드로는 Sanyo(일본), Proline(영국), Li Lin (대만), Paradox (미국/캐나다), Basic Tech (남아공), Elmo(일본), Panasonic, Sony 등이 있으며 한국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다.

재수출과 내수의 비중은 7:3으로 최근 UAE의 건설붐에 따라 UAE의 내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IP 카메라나 서버 시장은 아직까지는 200만~300만달러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지만 점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3년 이내에는 이들 제품이 기존 CCTV 시장의 30% 이상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TFT시장 韓.中.日 경쟁 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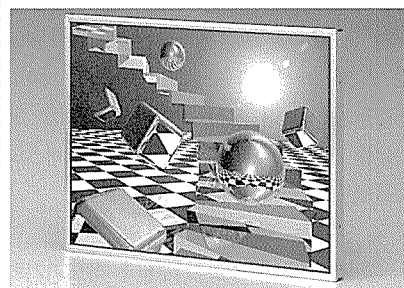
중국에서 최초로 중국기업이 자체 개발한 대형 박막 트랜지스터(TFT) 액정판의 대량 생산이 시작됐다. 2005년 5월 25일 북경에 본거지를 둔 전자기기제조업체 징통팡커지 지투안(京東方科技集團)은 북경시 교외에 건설한 신공장에서 양산 착수 기념식전을 개최했다.

이 회사의 왕통청 대표이사는 “중국 최대, 최강의 TFT 액정판 메이커로 부상할 것”임을 선언했다. 징통팡은 지난 2003년 1월, 한국의 하이닉스 반도체의 TFT액정판 사업 부문을 3,800억원에 매수하면서 한국의 생산설비 및 기술자를 포함해 약 1,700명의 종업원을 산하에 두게 됐다. 즉, 액정판의 자사 개발 체제를 손아귀에 넣은 것이다. 또한 북경경제기술개발구의 60헥타르에 이르는 광대한 부지에 총액 1,250억엔을 투자해서 유리 기판 한 면이 1m를 넘는 ‘제 5세대’ 액정판의 신공장을 건설했다.

최근 대량 생산을 시작한 것은 컴퓨터용 화상에 들어가는 17인치와 19인치 액정판. 생산능력은 월 3만장(유리기판 기준)으로 곧 액정 TV용 26인치와 32인치의 생산도 시작한다. 연내에 설비를 대폭 늘려 생산능력을 6만장으로 확대하고 2006년 말까지 월 8만 5,000장으로 늘일 것이다. 2007년에는 초대형인 제6세대, 제7세대 액정판의 생산을 염두에 둔 제2공장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 제5세대 액정판의 양산은 2004년 10월에 가동한 상해광전집단과 NEC의 합병회사인 ‘상해광전NEC액정’에 이어 두번째이다. 상해광전NEC의 현 생산능력은 월 4만 5,000장, 2006년 3월까지 월 5만 2,000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징통팡의 증산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내에 상해광전NEC을 누르고 중국 최대의 액정판 제조업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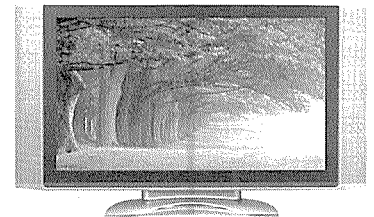
징통팡의 참가로 액정화상이나 액정TV의 가격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액정판 시장은 2004년 여름부터 공급이 수요를 크



게 웃도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17인치 액정판의 업체출하가격은 약 50% 이상 떨어졌다. 지금 시가로는 기판업체의 대부분이 적자를 보고 있다.

경동방도 한국 기존 공장의 채산성 악화로 2005년 1~3월기에만 54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힘든 환경에서 밀어내기 식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통팡은 신공장의 성공에 자신을 보인다. 하이닉스에서 이적하여 경동방의 TFT액정판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병도 집행이사는 “중국 생산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이 우리 최대의 경쟁력이다”라고 지적한다.

덱트론, 일체형 LCD TV 발표



덱트론은 원보드칩(One Board Chip) 제품인 ‘주피터 TV’를 이 달 말 출시할 예정이라고 7월 6일 밝혔다.

덱트론이 출시하는 제품은 32인치와 37인치 일체형 LCD TV로 칩과 보드 하나로 모든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기존 일체형 디지털TV가 지상파 아날로그방송과 디지털방송, 위성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칩과 보드 두 개를 사용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주피터 TV는 경제적으로도 뛰어나 재료비와 생산가공비용이 각각 30%, 40% 이상 절감되며, 부품 수도 30% 이상 줄어든다. 부품수가 줄어들어 따라 AS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외 전력소비량이 20% 절감되고, 고화질 화면도 구현할 수 있어 이점이다. 덱트론은 “하반기부터 국내와 미주시장을 대상으로 주피터 TV 판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